나는 사랑한다, 나는 존재한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

양운덕

* 지극히 슬프지만 아름답기 그지없는 사랑 노래

베토벤은 현악 4중주 6곡을 묶어서 작품 번호 18로 출판한다. 이는 그가 작곡한 최초의 현악사중주들이다. 이 가운데 첫 번째 곡(F 단조)의 2악장은 지극히 아름다우면서도 그 곡조가 범상치 않은 비장함을 노래한다. 이 곡의 2악장을 들은 한 친구가 이곡이 마치 사랑하는 이들이 헤어지는 장면 같다고 하자, 베토벤 자신은「로미오와 줄리엣」의 무덤 장면을 연상했다고 한다.

로미오 '와' 줄리엣,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

사랑의 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로미오와 줄리엣」은 비극적 사랑의 대명사이자 사랑의 화신인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을 사랑과 죽음의 테마를 통해서 감동적으로 제시한다.

이들은 불가능한 사랑을 사랑의 모험으로, 사랑의 비극을 비극적인 사랑으로 바꿔놓는다.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 죽음으로 하나가 된다고 믿는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주제를 또렷하게 선언한다.

"나는 사랑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사랑과 존재가 하나라고 믿는 이런 태도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불가능한 사랑 앞에서 자신의 존재마저도 내던질 수 있는 거침없는 태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것은 연극적 강렬함, 과장법, 충격 효과를 위한 퍼포먼스인가? 아니면 사랑의 지고한 가

치가 생명보다 우월하다는 선언인가? 어떻게 사랑의 제단에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는가? 그토록 순결하고 지고한 사랑의 이름을 내 걸 수 있는가? 현실적인 이해나 사랑의 효과에 대한 치밀한 배려가 아니라, 사랑을 모든 것에 앞세우고, 모든 것을 사랑이라는 바탕에서 다시 세우고, 모든 것을 사랑을 지향점으로 삼아서 자리매김하는 이런 '사랑'주의를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가? 정당화되지 않더라도 어떻게 동경과 선망의 대상일 수 있는가? 그것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연극 무대에서 허구적으로 제시하는 '그들'의 실험적 사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가?

사랑이 너와 나의 존재 이유라면 사랑 없이는 나도 너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닌가? 사랑은 나와 너의 관계를 나와 너의 존재에 앞세운다. 사랑 없는 나, 사랑하는 이가 없는 나는 어떤 존재 이유를 지닐 수 있는가?

* 사랑 앞에서

사랑에 빠진 이가 어떤 극적인 변화를 겪는지를 잘 드러내는 흥미로운 장면을 보자.

3막 2장에서 주변의 적대적인 분위기 탓에 둘만의 결혼식을 올린 줄리엣은 '바로 그날' (사실상의) 남편이 된 로미오가 결투하는 과정에서 사촌 오빠(티볼트)를 살해했다는 얘기를 듣는다. 줄리엣은 혼란스러워 한다.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랑하는 이의 행위를 긍정해야 하는가—이는 살인을 긍정하는 것이다— 아니면 살인을 비난해야 하는가? 게다가 로미오가 추방된다고 하니 어쩌면 좋은가?

살인에 대한 증오와 사랑의 절대성에 대한 긍정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녀는 상반된 두 모습을 차례로 보여준다. 사촌 오빠를 죽인 로미오의 폭력성, 악마성--그토록 선량한 얼굴의 주인공이 잔혹한 살인자라니—에 치를 떨면서 존재의 이중성, 역설에 격분한다. 하지만 결투하는 과정에서 로미오가 죽었을 수도 있지 않은가? 소중한 존재

를 희생하더라도 사랑을 저버릴 수는 없지 않은가? 그녀는 로미오가 살아남았다는 점에 안도하다가 이 살인사건 때문에 로미오가 '추방'된다고 하는 점에 생각이 미치자 어쩔 줄 모른다.

갈등 상황에서 그녀가 급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 때문에' 일어난 극단적인 전환을 보는 것은 흥미롭다.

처음 유모로부터 소식을 들은 줄리엣이 한 존재의 상반된 모습에 분노한다.

"아 꽃 같은 얼굴에 감춰진 독사의 마음! 용이 그렇게도 아름다운 굴속에 사는 경우가 있었던가? 어여쁜 폭군beautiful tyrannt, 천사 같은 악마feind angelical, 비둘기 깃을 단 까마귀, 늑대같이 잔인한 양 새끼! 모습은 신성하면서도 마음은 천한 근성 honourable villian, 보기와 정반대인 존재just opposite to what justly seem'st, 마귀 같은 성자a damned saint, 고결한 불한당! 아, 자연이여, 마귀의 혼을 세상의 낙원처럼 아름다운 육체 속에 담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느냐!? 그렇게도 더러운 내용의 책book containing such vile matter이 그렇게도 아름답게 제본된 so fairly bound 예도 있었던가? 아 그토록 눈부신 대궐 안에 그런 허위가 살다니!"

그런데 유모가 덩달아서 남자들이란 믿을 수 없고 거짓 맹세를 일삼는다고 비난하자, 줄리엣은 자신이 로미오를 비난했음을 깨닫고 갑자기 태도를 바꾼다. (스피노자가 지적하듯이, 내가 사랑하는 이를 비난하는 자는 나를 슬프거나 분노하게 한다.)

"그런 악담을 하는 유모의 혓바닥이나 갈라지라지. 그인 그런 악담을 받을 분이 아니지. 그이 이마에 그런 욕설이 부끄러워서 얼씬하기나 할 줄 알아. 그이 이마는 명예가 천하에서 으뜸가는 제왕같이 군림할 옥좌예요. 아, 사람답지 않게 어쩌자고 내가 그 이를 책망했을까!"

유모가 사촌 오빠를 죽인 사람을 칭찬하느냐고 되묻지만 그녀는 자신이 내뱉은 말을 주워 담고 싶어 하며 사촌 오빠와 로미오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주

목한다. "내 남편을 욕할 수 있나요? 아, 불쌍한 분, 세 시간 전에 당신 아내가 된 내가 당신의 명예를 망쳐 놓았으니, 무슨 말로 그 명예를 회복시킬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만 나쁜 사람, 무엇 때문에 오빠를 죽였나요? 하지만 안 그랬더라면 나쁜 오빠가 내 남편을 죽였을 지도 모르지. 미련한 눈물아, 어서 네 우물로 돌아가라! 슬픔에 쏟아야 할 눈물방울아, 잘못 알고 기쁨에 쏟고 있구나. 티볼트가 죽이려던 내 남편은 살고 내 남편을 죽이려던 티볼트는 죽었어. 이건 모조리 기쁨인데, 어쩌자고 내가 울까? 하지만 티볼트의 죽음보다 더 나쁜 한마디가 날 죽였지. 그 한마디를 잊어버렸으면! 그러나 아, 죄지은 마음을 흉악한 죄악이 가책하듯이, 그 한마디가 내 기억에 밀려드는구나."

그런데 로미오가 추방된다고 하니 어쩌면 좋은가? 추방이라니! 차라리.....

" '티볼트는 죽고, 로미오는 추방' 그 '추방', 그 한마디 '추방'은 티볼트를 만 명 죽인 것이나 다름없어. 티볼트의 죽음, 그것만으로도 너무 슬프지만, 쓰라린 슬픔이 친구를 좋아해서 다른 슬픔과 꼭 짝을 지어야겠다면, '티볼트가 죽었다'고 유모가 말했을 때 아버지나 어머니, 아니 두 분이 모두 죽겠다고 왜 말하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흔해 빠진 통곡만으로 그칠 게 아닌가? 그러나 티볼트가 죽었다는 말 끝에 '로미오는 추방'이라고 했으니 그럼 그 말은 아버지, 어머니, 티볼트, 로미오, 줄리엣 모두 칼에 맞아 죽은 것이나 다름없어. '로미오는 추방!' 이 한마디의 무서운 힘에는 끝도 없고, 경계도 없고, 척도도 없고 묶어둘 것마저 없지."

줄리엣은 유모가 들고 온 사다리(로미오가 자신의 방으로 올라오도록 하기 위한)를 치우라고 한다. 그녀는 그의 추방에 맞서서 죽음까지 각오한다.

"부모님은 오빠의 상처 자국을 눈물로 씻어 줄 모양이군! 부모님의 눈물이 마르거든 내 눈물은 로미오님의 추방 때문에 흘려야지. 그 줄사다리는 치워요. 가엾은 줄사다리야, 너와 나는 속았구나. 로미오님은 귀양 가신단다. 그이는 너를 내 침실로 통하는 신작로로 삼을 참이었는데, 이 숫처녀는 처녀 과부로 죽을 수밖에. 이리 온. 줄사다리야, 유모도 이

리 와요. 나는 신방으로 가겠어. 그리고 로미오 아닌 죽음에게 숫처녀를 바치겠어!"

로미오의 '추방'이 자신과 로미오에게 죽음의 선고나 마찬가지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그녀는 자신을 죽음에게 바칠 각오까지 한다. (이는 로미오의 사랑이 없는 삶이 살만한 가치가 없음을 뜻하는 것이지만, 관객들에겐 그녀에게 닥칠 죽음에 대한 암시처럼 들리기도 한다.) 사랑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이 생명을 바칩니다!

이처럼 티볼트의 죽음은 줄리엣의 사랑을 시험하는 계기이기도 하다. 사랑의 배는 험한 풍랑을 극복하고 목적지로 나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배를 돌려서 일상과 현실의 세계로 되돌아올 것인가? 이런 상황은 그녀에게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로미오를 진정 사랑하는가? 오로지 로미오 자체를, 다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사랑하는가? 줄리엣은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는 줄리엣의 모습에서 사랑하는 이의 결함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흔들리거나 약해질 수 없는 사례를 볼 수 있다. 이처럼 사랑은 '전체'를 요구하고, 한 존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고,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음을 보여준다. 나는 너를 너 자체로서 사랑한다—이런 긍정은 '나는 네가 어떠하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저런 점 때문에 사랑할 수 없다'와 대조적이다. 이런 줄리엣은 '사랑'주의자이다.

* 로미오와 줄리엣의 첫 만남

이런 '운명적인' 만남의 주인공들에게 첫 만남의 순간은 어떠했을까? 1막 5장에서 (로잘라인에 대한 사랑 때문에 고뇌하던) 로미오는 연회에서 줄리엣을 보는 순간, 얼빠진 사람처럼 그녀에게 빠져든다. 어떻게 조금 전까지 그의 존 존재를 뒤흔들던 여인에 대한 사랑을 버리고 줄리엣과 '순식간에' 사랑에 빠지는가? 그는 줄리엣을 보자마자 그녀에게 사로잡힌다. 서로 '첫 눈에 반한' 이 둘을 어찌하면 좋은가?

"아, 저 여자는 횃불에게 밝게 타도록 가르치고 있구나! 저 여자는 에티오피아 여인의 귀에 달린 값비싼 보석처럼 밤의 볼에 걸려 있는 것 같구나—그 아름다움은 쓰자니 너무나 값지고 속세엔 너무도 아깝구나! 저 여자가 동료들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라.. 까마귀 떼 가운데 있는 백설 같은 비둘기가 저러하겠지. 저이 있는 것을 잘 봐두었다가 춤이 끝나면 지저분한 이 손으로 그곳을 만져보자. 그러면 얼마나 기쁠까. 내 마음이 여태껏 연애를 하고 있었다고? 눈아, 그것을 부정하라! 오늘 밤에야 비로소 진짜 아름다움을 보았구나."

로미오가 이렇게 감탄하는 것을 들은 티볼트가 원수 집안의 자식이라고 하며 그를 공격하려고 하자 아버지 캐퓰리트가 그가 품행이 좋은 청년으로 알려져 있고 별다른 말썽을 부리는 것도 아니니 그냥 두라고 말린다.

줄리엣의 손을 잡은 로미오가 자기의 불타는 마음을 표현한다.

"천한 이 손으로 그 거룩한 성당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라면, 그 점잖은 죄의 보상으로 내 입술이 낯을 붉힌 두 순례자처럼 대기하여 점잖게 키스하여 그 추한 자국을 씻고자 하오."

"착한 순례자님. 그건 당신 손에 지나친 욕이지요. 당신 손은 그처럼 점잖게 신앙심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성자의 손은 순례자가 손을 대기 위해서 있고, 손바닥을 맞대는 것이 거룩한 순례자들의 키스가 아닌가요."

"성자에게나 순례자에게도 입술이 있잖소."

"아이, 순례자님, 그건 기도를 올리기 위한 입술이에요."

"아 그럼 성녀님, 손으로 하는 키스를 입술로 하게 해주시오. 입술이 기원하니 허락해 주시오. 신앙이 절망으로 변하면 안 되니까요."

"성자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아요. 비록 기원을 들어주는 일이 있더라도."

"그럼, 움직이지 말고 계시오. 내 기원의 효험을 받으리다. 이렇게 당신의 입술로, 내

입술에서 죄는 씻어집니다.(키스한다)

"그럼, 제 입술이 그 죄를 짊어지게요."

"내 입술에서 죄를, 아 달콤한 꾸짖음! 내 죄를 돌려주오."(키스한다)

이때 줄리엣의 유모가 부르는 것을 들은 로미오는 그녀가 캐풀리트 집안의 아가씨임을 알게 된다.

"캐풀리트 집 딸인가? 아, 값비싼 거래구나. 내 목숨은 원수의 저당물이 되었구나."

줄리엣은 유모에게 로미오가 누구인지 알아 오게 한다.

"가서 이름을 알아보고 오세요. 결혼하셨다면 무덤이 나의 신방이 될 거예요."

유모는 로미오가 (원수 사이인) 몬터규 집안의 외아들이라고 알린다.

"나의 유일한 사랑이 나의 유일한 증오에서 싹트다니! 모른 채로 너무 일찍 보아버렸고, 알고 보니 이미 늦었네! 미운 원수를 사랑해야만 하다니I must love a loathed enemy. 앞날이 염려되는 사랑의 탄생prodigious birth of love이구나!"

이 만남으로 사랑의 배는 갑자기 방향을 바꾸고 새로운 사랑의 깃발을 앞세우고 거친 바다를 향한다.

줄리엣과의 첫 만남, 첫 키스는 로미오를 새로운 사랑의 '노예'로 바꿔놓는다. 그는 로잘라인에 관한 (불가능하고 일방적인) 사랑과 고뇌를 단숨에 잊고 새로운 사랑에 빠진다. 물론 이들의 '운명적인' 사랑은 서로의 존재를 완전하게 수용하므로 그들의 사랑 자체에는 어떠한 난점도 존재하지 않지만, 그들을 둘러싼 외적 조건을 조금이라도 고려한다면 불가능한 사랑임이 자명하다. '원수들끼리 사랑에 빠지다니!' 이런 사랑은 원한을 뛰어넘고 모든 대립과 갈등을 사랑의 용광로로 용해시킬 수 있다고 선언하지만 외적 조건은 그런 시도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외적 장애물이 이들의 사랑을 불가능하게 하는가? 아니면 오히려 이런 장애물이 (내적 갈등이나 차이를 부각시키지 않고) 사랑의 역설적인 촉매가 되지는 않을까? 문제는 사랑의 내적 갈등이 아니라 외적 상황에 따른

시련과 방해가 불가능한 사랑의 마당을 펼친다. 이제 온갖 우연이 그들을 방해하겠지만 그들의 필연적 사랑은 그 독초들을 자양분으로 변형시킬 것이다.

*사랑에 빠진 로미오는 로미오가 아니다

사랑의 역설적인 측면은 외부 조건에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사랑 안에도 그런 역설이 없지 않다. 이런 점을 사랑의 두 얼굴로 형상화한 장면을 통해서 살펴보자.

이미 언급했지만 연극 첫 부분에 로미오는 이미 사랑에 빠진, 아니 사랑의 고뇌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자로 등장한다. 사랑에 빠진 로미오는 여전히 로미오 자신의 로미오다움을 지닐 수 있을까?

로미오가 새벽에 산책하는 장면을 본 친구 벤볼리오는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 (아버지역시 로미오가 새벽 산책을 하며 괴로워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원인을 몰라서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이윽고 로미오가 나타나자 벤볼리오는 로미오에게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느냐고 묻는다.

"항상 눈이 가려져 있는 그 사랑이란 놈은 눈 없이도 잘만 사랑의 과녁을 쏘아 맞히거든! .....미움과 관련된 소동도 소동이지만 사랑과 관련된 고민은 한 술 더하는걸. 아, 싸우는 사랑, 아, 사랑하는 미움, 원래 무에서 창조된 유! 아 무겁고도 가벼운 것, 진실한 허위, 겉치레는 근사하나 꼴사나운 혼돈, 납덩이의 솜털, 번쩍이는 연기, 차디찬 불, 병든 건강, 늘 눈떠있는 잠, 그것 아닌 그것, 바로 요런 것이 내가 느낀 사랑이지만, 어디 이런 사랑에 만족이 있어야지. 우습지 않나?"

벤볼리오가 로미오가 괴로워하는 까닭에 자신이 슬프다고 하자 그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한다.

"(...) 자네의 그런 애정은, 그렇잖아도 너무나 벅찬 내 고민엔 설상가상일세. 사랑이란

한숨으로 일으켜지는 연기, 맑게 개이면 애인 눈 속에서 번쩍이는 불꽃이요, 잔뜩 흐리면 애인의 눈물로 바다가 되네. 그런 게 사랑 아닌가? 가장 분별 있는 미치광이요, 또한 목을 조르는 쓰디쓴 약인가 하면, 생명에 활력을 주는 감로이기도 하네. 그럼 잘 있게."

사랑 때문에 넋이 나간 로미오는 자기를 로미오로 여길까?

"흥, 나야 말로 나 자신을 어디다 두고 여기 없는걸. 난 여기 없네. 이 사람은 로미오가 아니네. 그는 어디 다른 곳에 가 있다네."

그는 사랑에 빠진 자기가 사실은 자기가 아니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그'라고 지칭한다. '사랑에 빠진 로미오 녀석'은 로미오가 보기에도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엇이다. 그는 자신이 어떤 여자를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그 여자가 어디 큐피드의 화살에 맞아야지. 그녀는 다이아나의 분별력을 지니고 있고 순결이란 갑옷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있으니, 애들 장난감 같은 사랑의 화살 따위엔 상처를 입지도 않네. 게다가 구애의 공세도 피해 버리고, 사랑의 눈초리의 집중 공격에도 끄떡도 없거든. 그뿐인가. 성인을 유혹하는 황금에도 치마를 벌리지 않는다네. 아, 굉장한 미인이지만, 죽으면 그녀의 아름다움도 밑천과 함께 사라져 버릴 테니 아까운 일이지."

그녀가 독신으로 지낼 맹세라도 했느냐고 묻자, "그렇다네. 그런데, 그렇게 인색한 것은 오히려 큰 낭비가 아니냔 말일세. 아름다움이 금욕 때문에 굶주리면 자자손손의 아름다움까지 잘라 버리는 셈이 아닌가. 저 예쁘고 어질고 착한 여자가 나를 이렇게 절망 속에 몰아넣고서야 어디 축복을 받을 수 있겠나. 그 여자는 사랑을 않기로 맹세했다는데, 그 맹세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나는 산송장이 되어 있는 셈이네."

벤볼리오는 그 여인을 잊거나 다른 여인을 찾으라고 충고한다.

"그건 그녀의 뛰어나 미모를 더욱더 생각나게 할 뿐일세. 미녀들 이마에 입맞춤하는 저 과분한 탈이 검기 때문에 우리는 도이어 가려진 미모를 생각하게 되잖나. 갑자기 눈이 먼

자는 그 귀한 보배인 잃어버린 시력을 못 잊는 법이야. 절세미인을 좀 대 주게. 그까짓 미모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 잘세 미인을 능가하는 미인을 읽어보게 할 주석의 구실 밖에 되지 않아. 그럼, 잘 있게. 내개 잊을 방법을 대 주진 못할 걸세."

벤볼리오는 불이 불을 끄고, 새로운 고통이 낡은 아픔을 덜어주므로 한 고민을 다른 고민으로 대체하라고 권한다. 그들은 케풀리트 가의 무도회 소식을 듣는데, 벤볼리오는 로미오에게 로잘라인을 새로운 미녀와 비교해보라고 권한다. 로미오의 백조가 까마귀 꼴이 될 것이라고 하지만, 로미오는 그녀의 미를 한껏 내세운다. 그런데 어찌 알겠는가? 이런 로미오가 순식간에 얼빠진 상태가 될 줄을. ("...내 애인보다 미인이라고! 만물을 모두 내려다보는 태양도 천지개벽 이래 이만한 미인은 못 보았을 걸.")

이런 로미오의 모습을 볼 때, 연극 전체를 모르는 경우에는, 이런 고뇌가 연극의 주요 테마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이다. 이 고뇌가 어떤 과정과 갈등을 겪으면서 해소될까? 그런데 곧바로 이런 고뇌를 대체하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 로미오가 이런 고뇌를 해결하는 과정 대신에 고뇌 자체가 해소되고 만다. 줄리엣의 등장 때문에.

2막 3장에서 로미로를 만난 로렌스 신부는 로잘라인과의 사랑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는다. 로미오는 막연하게 다른 상대와 사랑에 빠졌음을 고백한다.

"실은 원수네 집 연회에 갔었는데, 난데없이 나를 상처 낸 자가 있었고, 나도 그 편을 상처 냈지요. 그런데 우리 두 사람의 구원은 신부님의 조력과 거룩한 치료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신부님, 제가 무슨 원한을 지녀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의 애원은 원수 편에도 약이 됩니다."

"캐풀리트 갑부 댁의 예쁜 따님에게 저의 진정한 사람을 바쳤습니다. 내가 사랑하듯이 저 편에서도 나를 사랑합니다. 모든 인연은 맺어져 있으니, 다만 신부님께서는 신 앞에 결혼식 주례만 서주십시오. 우리가 언제 만나 어디서 사랑을 속삭이고 어떻게 맹세를 나누었는가는 가면서 얘기하겠습니다만, 부디 오늘 저희들이 결혼식을 올리게 해 주십시

오."

로렌스 신부: "아, 프란체스코 성자님! 이게 웬 변화함! 네가 그토록 사랑하던 로잘라인을 이렇게 쉽게 잊었단 말이냐? 젊은이들의 사랑은 과연 마음속에 있지 않고 눈 속에 있나 보구나. 아,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는 구나! 너는 로잘라인 때문에 그 파리한 뺨을 짜릿한 눈물로 무던히도 씻었겠다! 맛 잃은 사랑에 간을 주려고 공연히 짭짤한 눈물을 무던히도 쏟았겠다! 아직 태양은 네 한숨을 하늘에서 거두질 않았고, 이 전에 네가 앓던 소리는 아직도 이 늙은 이 귀에 쟁쟁 울린다. 저것 봐, 네 볼엔 이전의 눈물 자국이 아직도 안 씻긴 채 남아 있지 않느냐. 네가 네 자신임에 틀림없고, 저 고민도 네 고민이었을 텐데, 너 자신도 그 고민도 모두 로잘라인 때문이 아니었느냐. 아니 사람이 변했나? 그럼 이런 격언이라고 외워 보게. 사내자식도 못 믿을 세상이니 여자의 타락쯤이야 예시가 아니겠냐고."

"로잘라인을 사랑했을 때도 신부님은 툭하면 절 꾸짖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넋이 빠졌으니까 그랬지."

"그리고 사랑을 파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하나를 파묻고 다른 하나를 파내라는 것이냐, 어디."

"제발 꾸짖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사랑하는 여자는 호의에는 호의로, 사랑에는 사랑으로 보답하는 여자입니다. 로잘라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참 로잘라인이 잘 보았어. 네 녀석의 사랑은 암기하는 식으로 글자를 모르는 사랑이었거든. 아무튼 가자. 이 줏대 없는 녀석아, 나와 같이 가자. 나도 생각이 있으니 너를 도와주겠다. 이 연분으로 다행히 두 집 원한이 참된 애정으로 돌아설지도 모르니까."

*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의 항해에 나선 두 모험가들은 어떻게 온갖 풍랑을 헤치고 사랑의 섬에 이를 수 있을까?

로미오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줄리엣을 만날 수 없어서 몰래 그녀를 찾아간다. 그는 담을 넘어서 정원에서 기다리다가 이층 창문에 나타난 줄리엣의 자태에 감탄하고, 그녀는 로미오가 있는 줄도 모르고 허공에 자신의 사랑을 고백한다. (2막 2장)

줄리엣을 보고 난 이후에 로미오에게 줄리엣은 그의 '존재 이유'가 된다. '그녀는 나의 모든 것이다.' '그녀 없는 삶은 생각할 수도 없으니 .....'

"... 줄리엣은 태양이다! 밝은 태양이다. 떠올라서 시샘하는 달님을 죽여 다오, 달의 시녀인 그대가 달 자신보다 엄청나게 예쁘다고 달님은 이미 슬픔에 병들어 창백해져 있소. 제발 달의 시녀 노릇은 하지 마오. ....온 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별 두 개가, 저 두 눈에 청하여 자기들이 돌아올 때까지 대신 하늘에서 반짝여 달라고 하는구나. 만약에 저 두 눈과 그 두 별이 자리를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 저 밝은 볼은 그 두 별을 햇빛 아래 등불처럼 무색케 할 테지. 하늘로 간 저 두 눈은 창공에 한껏 빛날 테니. 새들도 밤이 아닌 줄 알고 노래할 거야. 저것 봐. 볼을 손 위에 갖다 대는구나! 아 내가 저 손에 끼워진 장갑이라면 저 볼에 닿아 볼 수 있으련만!"

"아, 빛나는 천사여, 한 번 더 말해보시오. 오늘 밤 내 머리 위에서 빛나는 당신 모습은 날개 돋친 하늘의 사도님이 슬슬 흘러가는 구름을 밟고 공중 한 복판을 훨훨 지날 때 놀라서 허옇게 뒤집힌 눈으로 쳐다볼 때의 모습같이 빛나는군요."

외적인 장애는 그들의 사랑을 방해하기는커녕 더욱 강렬하고 뜨겁게 만들뿐이다. 줄리엣 역시 홀로 한탄하며 로미오의 이름을 부른다.

"아, 로미오, 로미오님. 왜 이름이 로미오인가요? 아버지를 잊으시고 그 이름을 버리셔요. 아니 그렇게 못하시겠다면, 저를 사랑한다고 맹세만이라도 해 주셔요. 그러면 저도 캐풀릿의 성을 버리겠어요."

줄리엣은 로미오라는 이름보다는 그 이름에 가려진 실체를 붙잡고자 한다. 마치 이름과 실체가 무관하고 이름은 음성의 떨림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로미오가 입고 있는 '로미오'라는 이름-옷을 벗겨서 로미오 자체를 드러내고자 한다. 그것이 특정한 사회적 규정에 지나지 않고, 이름에 의해서 왜곡되지 않은 그 무엇이 있는 것처럼.

"당신 이름만 내 원수일 뿐이에요. 몬터규네 가문이 아니라도 당신은 당신, 아, 다른 이름이 되어주세요! 몬터규란 이름이 무엇인가요? 손도 발도 팔도 낯도 아니고, 신체의 어떤 부분도 아니잖아. 이름에 뭐가 있다고? 장미꽃은 다른 이름으로도 똑같이 향기로울 것이 아닌가? 로미오도 로미오란 이름이 아니어도, 그 이름과는 관계없이 본래의 미덕은 그대로 남아있지 않나? 로미오님, 그 이름을 버리고 당신의 신체와 상관없는 그 이름 대신에 이 몸을 고스란히 가지세요."

로미오는 자신이 더 이상 로미오가 아니라고 하면서 줄리엣에게 자신이 있음을 알린다.

"그 말대로 당신을 가지겠소. 나를 사랑한다고만 말해주시면 다시 세례를 받고 이제부터 로미오란 이름을 영영 버리겠소."

"하지만 여길 어떻게, 뭣 하려 오셨어요? 담은 높아서 오르기 어렵고, 당신의 입장으로 우리 집 사람에게 들키는 날이면 이곳은 죽음이 장소인데요."

"이까짓 담은 사랑의 가벼운 날개를 타고 뛰어넘었지요, 돌담이 어떻게 사람을 막을 수 있겠소. 해낼 수만 있다면 사랑은 무엇이든 해내니까요. 그러니까 당신네 집 사람들도 날 막지 못해요."

"하지만 들키면 당신은 죽어요."

"아아, 그들의 스무 자루 칼보다 당신의 눈이 더 무섭다오, 당신만 정다운 눈길을 보내주면 그들의 적개심이야 문제될 것이 있겠소."

"무슨 일이 있어도 이곳에선 들키지 않도록 하세요."

“한밤중 어둠의 외투에 가려 있으니 그들 눈엔 안 뜨일 거요. 그보다 당신 사랑을 못 받는다면 차라리 이대로 들켜버리는 게 낫소, 당신의 사랑도 없이 지루하게 사느니 보다 그들의 미움을 받으며 죽는 편이 나으니까.”

“누가 안내해서 여길 찾아오셨나요?”

“사랑이 안내했다오. 처음에 찾으라고 재촉한 것도 사랑이고, 지혜를 빌려준 것도 사랑이오. 난 눈만을 빌려준 셈이지요. 난 수로 안내인은 아니지만 당신 같은 보배라면 머나먼 바닷물로 출렁이는 아득한 해안 길처럼 먼 곳이라도 기어이 찾아 가겠소”

줄리엣은 로미오가 자신의 사랑 고백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숨기지 않고 자신의 참된 사랑을 받아달라고 호소한다. 그들 사이에 싹트고 무성하게 자라날 사랑은 싹트자마자 가지가 기다렸다는 듯이 무성하게 자라나고 금방이라도 열매까지 맺을 듯이 열정 가득한 그들만의 세계를 오롯이 빚기 시작한다.

“제 얼굴이 이렇게 한밤의 가면으로 가려져 있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다면 이 뺨은 수줍은 처녀의 마음으로 빨갛게 물들어 있을 거예요. 오늘 밤 당신이 제 말을 엿들었으니까요. 전 체면도 차리고 싶고, 입 밖에 한 말을 취소하고 싶기는 해요. 하지만 체면이여, 안녕!”

한가한 사랑 이야기에 흔한 밀고 당기기, 사랑하지 않는 체하는 사랑하기, 상대를 더 잘 붙잡기 위한 술책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친밀함을 더하고 사랑이 익어가는 과정도 없이 ‘곧바로’ 사랑의 파도에 뛰어들어 일사천리로 사랑의 바다로 나아간다.

“저를 사랑하시나요? 물론 그렇다고 하시겠지요. 그 말을 믿겠어요. 하지만 아무리 맹세를 하더라도 깨뜨리실지 몰라요. 애인들의 거짓말에는 조브 신도 웃으신다지요. 아 그리운 로미오님, 사랑하신다면 솔직히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너무 쉽게 저를 손에 넣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전 심통을 부리고 찌푸린 얼굴로 당신을 거절할래요. 그래도 다시 사랑을 애걸해 오셔야 해요. 안 그러신고 한들 어떻게 당신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그리운 몬터규 님. 진정 저는 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당신은 저를 경박한 여자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더라도 저는 서먹서먹한 채 잔꾀 부리는 여자들보다는 훨씬 더 진실한 여자임을 증명해 보이겠어요. 정말로요. 참다운 사랑의 고백을 저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이 엿듣지만 않으셨다면 정말 좀 더 쌀쌀하게 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용서하시고 행여 들뜬 사랑에서 이처럼 마음을 허락한 것이라고 꾸짖지는 마세요. 밤의 어둠 때문에 이렇게 탄로 난 사랑이니까요."

로미오가 달에 걸고 사랑을 맹세하려고 하자 줄리엣은 쉬 모양이 바뀌는 달은 싫다고 한다.

"행여 맹세는 마세요. 그래도 기어이 맹세를 하시려거든 당신 자신에 맹세하세요. 당신은 제가 우상처럼 믿는 신령이니, 당신을 믿겠어요."

"내 가슴에 사무치는 사랑이 혹..."

"글쎄, 맹세는 하지 마세요. 당신을 뵌 것이 기쁘지만, 오늘 밤의 그런 맹세는 싫어요. 이건 어쩐지, 너무 무모하고, 너무 나 갑작스러워서, '저것 보라'고 말할 새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번갯불 같아요, 그럼 안녕히. 이 사랑의 꽃봉오리는 여름날 바람에 마냥 부풀었다가, 다음 만날 때엔 예쁘게 꽃 필거예요. 안녕히, 안녕히! 달콤한 안식과 휴식이 저의 가슴breast처럼 당신 심장heart에도 깃들기를!"

"이렇게 섭섭하게 들어가려오?"

"그럼 어떻게 하면 오늘밤이 섭섭하지 않을까요?"

"서로 진정을 모아 사랑의 맹세를 교환합시다."

"저의 맹세는 당신이 청하기도 전에 벌써 드렸잖아요. 할 수 있다면 다시 드리고 싶어요."

"그럼 그 맹세를 다시 가져가고 싶단 말이오? 사랑이여, 무슨 이유라도 있나요?"

"다만 아낌없이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하지만 내가 지니고 있는 애정에 대해서 내가 욕심을 부리나 봐요. 제 마음은 바다처럼 한이 없고 애정도 바다처럼 깊어요. 당신께 드리면 드릴수록 저는 더 많이 지니고 있답니다. 둘 다 무한하게infinite 있으니까요. 안에서 누가 부르는가 봐요. 그럼, 안녕히. (.....) 그리운 몬터규님, 변치 말아요. 잠깐만 계세요. 곧 돌아올게요."

"아, 참, 행복한 밤이다. 지금 밤인데 혹시 이게 꿈인 건 아닐까? 너무나 달콤해서 사실이 아닌 듯하네."

줄리엣이 창문에 다시 나타나서 로미오의 애정이 진정하고 결혼할 계획이라면, 내일 사람을 보낼 테니, 어디서 언제 결혼식을 올릴지 알려 달라고 한다.

"그러면 운명을 송두리째 당신 발밑에 내던지고, 당신을 낭군삼아 세계 어느 곳에라도 따라가겠어요."

두 주인공은 사랑 앞에서 자신의 전 존재를 내던져야 하는 사랑의 모험에 나선다. 사랑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사랑을 대신할 수 없고, 사랑의 길을 가로막을 수 없다. '우리는 사랑한다. 우리는 존재한다.'

* 삶의 원리 또는 삶을 넘어서는 사랑

두 주인공은 그들의 사랑을 확인하고 화급하게 (로렌스 신부의 사제관에서) 그들만의 비밀결혼식을 올린다. (2막 6장)

"아멘, 아멘, 그러나 어떠한 슬픔이 닥쳐오더라도 그런 것은 그녀를 보는 순간에 일어나는 서로간의 기쁨을 당하진 못합니다. 신부님, 신성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손을 맺어 주십시오. 사랑을 잡아먹는 죽음더러 무슨 짓이건 하라지요. 그녀를 내 것이라고 부르기만 하면 족하니까요."

(로렌스 신부) "그와 같이 격렬한 기쁨은 격렬하게 끝나며 불과 화약이 서로 닿자마자 폭발하듯이 승리의 결정 속에서 죽는 법. 지나치게 단 꿀은 달기 때문에 도리어 싫증나며

맛을 보면 입맛을 버린다. 그러니까 사랑은 절도 있게 해야 하지. 오래가는 사랑은 다 그렇지. 서두르면 살피면서 가는 것보다 오히려 더디니까. 아가씨가 오는구나. (줄리엣 등장) 아, 저렇게 가벼운 걸음걸이엔 저 딱딱한 바닥들은 조금도 닳지 않겠지! 연애하는 자는 여름날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거미줄을 타도 안 떨어질 거야. 사랑의 기쁨은 그렇게도 가벼운 것이거든."

"아, 줄리엣, 당신과 나의 기쁨의 양은 같더라도, 그 표현에서 당신이 위라면, 제발 당신의 말로 이 근처 공기를 향기롭게 해주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만나 서로 받는 꿈같은 행복을 음악 같이 풍요롭게 말해 주오."

"[참다운 사랑은] 말보다 내용이 더 풍성하고, 장식보다는 실속substance을 자랑하지요. 가난뱅이라야 가진 돈을 헤아릴 수 있지만, 저의 참된 사랑은 어찌할 수 없이 커져서 그 절반도 헤아릴 수 없어요."

로미오는 로렌스 신부로부터 추방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듣는다. (3막 3장) 그에게 추방령은 사형보다도 무서운 처벌이다. 사랑하는 줄리엣 곁을 떠나야만 하는 로미오. 줄리엣 없는 로미오라니!

"베로나의 성 바깥에는 세상이 없고, 연옥과 고문과 바로 지옥이 있을 뿐입니다. 이곳에서의 추방은 세상에서의 추방이고, 세상에서의 추방은 곧 사형입니다. 그러니 '추방'은 사형의 미명에 지나지 않지요. 사형을 '추방'이라고 하는 것은 금도끼로 이 목을 쳐서 죽이고, 그 솜씨를 빙그레 웃은 격이지요."

신부가 추방령이 사형에 비해서 자비로운 처벌이라고 설득하려 하지 로미오는 반발한

다. 차라리 불리엣 곁에 머물 수 있는 파리가 부러울 뿐이라고……

"그건 고문이지 자비는 아닙니다. 줄리엣이 사는 곳이 천당이지요. 뭇 고양이와 생쥐들과 온갖 하찮은 것들도 이곳 천당에 살면서 줄리엣을 볼 수 있는데, 이 로미오는 그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 로미오보다는 썩은 살에 날아드는 파리 떼들이 훨씬 더 명예스럽게 사는 보람이 있고 그 신분이 부럽기만 합니다. 그것들은 줄리엣 양의 저 하얀 손 위에 앉거나 순진한 처녀의 순결한 수줍음으로 위아래 입술이 닿는 것조차 죄라고 여기는지 항상 빨개져 있는 그녀의 입술에서 영원한 축복을 훔치곤 하지요. 파리들에게조차 허락되는 행복인데 이 로미오는 멀리 도망쳐야 하는군요. 그래도 신부님은 추방을 사형이 아니라고 하십니까? 이 로미오는 행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추방이오. 파리들에게도 허락되는 행복인데 나는 추방이군요. 파리들이 오히려 자유롭고 나는 추방이군요. 신부님은 배함한 독약도, 날카롭게 벼린 칼도, 그밖에 아무리 비겁한 방법이라도 당장에 죽일 무슨 방법이 없어서, 저를 '추방'으로 죽이시는지요? '추방'이라니! 오, 신부님, 그런 말은 지옥에 있는 악당들의 말투, 그 말엔 아비규환의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성직에 몸담고, 참회를 들으시며, 죄를 사하시는 신부님은, 게다가 누구나 아는 제 친구이시면서 어쩌자고 '추방'이라는 말로 이 몸을 잘게 썰어 놓으시는지요?"

"그 말을 막을 갑옷을 주마…역경을 덜어주는 달디 단 우유 같은 철학을 주마. 추방당하더라도 네게 위로가 되도록."

"또 추방인가요. 철학은 벽에나 걸어 두십시오. 철학이 줄리엣을 빚을 수도 있고, 도시를 옮겨 놓을 수도 있고, 영주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못할 바에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이제 더는 말씀을 마세요."

유모가 찾아와서 줄리엣의 괴로워하는 모습을 전하자 로미오 역시 견디지 못하고 자기 몸을 찌르려고 하고 신부는 그를 말린다. 그리고 줄리엣을 위해서라도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고 타이른다.

여기에서 신부는 삶과 이성의 원리, 로미오는 죽음까지 불사하는 열정을 대변한다. 신부는 사랑이 삶의 테두리 안에서 삶을 보존하는 것을 전제한다고 보지만, 로미오는 사랑이 삶의 경계마저도 넘어설 수 있다고 믿는다. 1)

* 날은 밝았지만 아직 아침은 아니에요—마지막 만남의 순간

('마지막' 만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베로나로 추방되는 로미오와 그를 보내고 싶지 않은 줄리엣의 짧은 만남.

둘의 첫 만남과 마지막 만남 사이에 그리 오랜 시간이 경과한 것은 아니지만 극적인 사건들로 가득한 까닭에 긴장된 각 순간들이 한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가면서 빈틈없이 시간을 채운다.

그러나 이별의 순간은 피할 수 없고, 그 이별이 새로운 만남의 보상이 불확실한 것이라면 비감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 이별의 밤은 왜 이리 짧기만 한지! 날이 밝았는데 억지로 어둠을 붙잡아 한 순간이나마 시간의 발걸음을 미루고자 하건만, 무심한 종달새의 지저귐은 아침을 알린다. '아마, 저건 나이팅게일일 거야.' (3막 5장)

"벌써 가시려고요? 밝으려면 아직 멀었는데. 당신 귓속에 무섭게 뚫고 들어오는 소리는 종달새가 아니라 나이팅게일 소리였어요, 저 소쩍새는 밤마다 적 석류나무 위에서 노래하고 있어요. 정말 나이팅게일이었어요."

"아침을 알리는 종달새 소리였소. 나이팅게일이 아니었소. 봐요. 심술궂은 비둘기가 저기 저 동쪽 하늘에 뭉게구름을 누비고 있잖소. 밤의 촛불들도 다 타고, 즐거운 아침 해는 안개 깊은 산마루에서 발돋움하고 있소. 난 여기를 떠나 목숨을 살리든가, 그냥 머물러 있다가 죽든가 할 수밖에 없소."

1) ("이 무슨 난폭한 짓이냐! 네가 사내대장부냐? 겉모습은 대장부 같다만 그 눈물은 여자의 것이

구나.

(.....) 인간을 탈을 쓰고서도 보기 흉한 짐승이 아니냐! 기가 막히는구나. 정말 네 녀석이 그런 인간인

지 몰랐구나. 너는 티볼트를 죽였지. 그런데 자살을 하겠다고? 개다가 그런 망측한 짓을 제 몸에 저

질러서, 너를 생명으로 아는 네 아내까지도 죽이겠다고...어쩌자고 너는 너의 탄생과 하늘과 땅을 저

주하느냐 말이다., 탄생과 하늘과 땅,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서 너라는 인간이 존재하게 되었는

데, 너는 그것들을 당장 내팽개치겠단 말이냐? [신부는 로미오가 지닌 빼어난 용모, 줄리엣의 사랑,

로미오에 내재하는 이성을 환기시킨다. 너는 얼마나 많은 미덕을 지니고 있는지!] 허허! 너의 용모와

애정과 이성이 부끄럽다. 구두쇠처럼 이것들은 모두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 너의 용모와 애정과 이

성을 빛낼 올바른 곳에는 전혀 쓰질 않는구나. 대장부의 용기에서 어긋나면, 너의 훌륭한 용모는 하

잘 것 없는 밀랍주형a form of wax에 지나지 않아. 네가 맹세한 애정도 그 상대를 죽인다면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겠느냐. 용모와 애정을 장식하는 너의 이성도 잘못 이끌 경우에는 미숙한 병사의 화약

통에 든 화약처럼, 자신이 무지한 탓에 불이 붙어, 자기 무기에 분쇄되고 말 거다. [로미오에게 닥친

불행한 사건도 다른 관점에서 보면 다행스러운 점이 없지 않다. 그를 사랑하는 줄리엣이 살아 있고,

로미오 자신도 살아 있으니 때를 기다리면 그 사랑이 열매 맺을 수 있지 않은가!] 정신 차려라! 금방

네가 죽어도 좋을 듯이 사랑한 줄리엣은 살아 있으니 네 행복이 아니냐. 티볼트는 너를 죽일 뻔

했으

나, 오히려 네가 티볼트를 죽였으니 이것도 네 행복이고. 사형을 내려야 할 국법도 너를 두둔하여 추

방으로 된 것이니, 이것 역시 네 행복이다. 축복의 보따리가 등 뒤에서 쏟아지고, 행복의 여신도 성장

하여 네게 추파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 버릇없는 계집애같이 심술궂게 네 행복과 사랑에 대해서 삐죽

거리고 있구나. 아서라, 삼가라. 그러다간 비참하게 죽을라. 약속한 대로 어서 애인에게 가서 그녀 방

으로 올라가라. 어서 가서 위로해 주거라. (...) 만토바에 가있으면 내가 때를 봐서 너희들 결혼을 발

표하고 두 집안을 화해시켜서 영주님의 용서를 얻어서 너를 부르겠다. 그때는 네가 비탄 속에 떠나는

것보다 이백만 배나 기쁠 게 아니냐. (....)")

"저기 저 빛은 햇빛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더 잘 알고 있어요. 태양이 내 던지는 유성

인가 본데 오늘 밤 당신에겐 횃불잡이가 되어 만토바로 가는 길을 비춰줄 거예요. 그러니

좀 더 계세요. 떠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난 잡혀도 좋고, 죽어도 좋소. 그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난 흡족하오. 저기 저

회색빛이 아침의 눈동자가 아니라 달님 얼굴을 하얗게 반사한 빛이라고 합시다. 머리 위

높이 창공을 울려대는 저 소리도 종달새가 아니지요. 사실 나도 이대로 있고 싶소. 떠나

긴 싫소. 자, 죽음아, 올 테면 오너라! 그것이 줄리엣의 소원이시란다. 여보, 어때요. 얘기

나 합시다. 밝으려면 아직 멀었소."

"아침이에요, 날이 밝았어요! 떠나세요. 어서, 떠나세요! 저 종달새 좀 봐, 저렇게 거칠

고 불쾌하게 곡조도 안 맞는 소리로 지저귀고 있네. 종달새는 달콤하게 노래한다는데 이

종달새는 그렇지 않고, 우릴 떼어놓는구나. 종달새와 징그러운 두꺼비는 서로 눈알을 바꾼다지요. 아, 그렇다면 소리마저 바꾸었으면! 껴안고 있는 우리를 저 소리가 후다닥 떼어서 아침 노래로 떠나도록 당신을 재촉하는군요. 자, 어서 떠나세요! 점점 더 밝아지네요."

"점점 더 밝아질수록more light and light 우리들의 슬픔은 점점 더 어두워지는 구려 more dark and dark."

이런 극명한 명암대조로 드러나듯이 헤어져야만 하는, 언제 다시 볼지 알 수 없는 그들의 '밝은' 아침은 어둡고 무거운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그들의 태양은 밝은 빛을 잃는데, 그들의 사랑으로 이런 슬픔의 대낮을 밝힐 수 있을까?

그런데 줄리엣 아버지는 그녀의 '다른' 결혼을 준비함으로써 사태를 헤어날 수 없는 질곡으로 내몬다. 출구 없는 길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을까? 로미오와 줄리엣의 지혜를 모으거나 (그렇게도 흔한) 조력자의 지혜로 (흔히 보는 다른 이야기들처럼) 신묘한 해결책을 찾아서 이 모든 뒤얽힘이 '헛소동'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명나면 좋을 텐데. 사랑의 여신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으신지? 그들은 사랑 약속만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 사랑은 사랑하는 이들을 지고한 곳으로 이끌지 않는단 말인가?

유모가 들어와서 줄리엣 어머니가 온다고 알린다.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그와 사랑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그녀. 아, 이것이 마지만 순간은 아니겠지.....

"안녕, 안녕히! 한 번 더 키스하고 내려가겠소."

"여보, 그리운 자기, 그렇게 가버리시나요? 날마다 시각 마다 꼭 편지 하셔야 해요. 일각이 여삼추니까요For in a minute there are many days. 어머나, 그렇게 시간을 헤아리다간by this count 다음번 만날 때면 난 무척 늙어있겠네요I shall be much in years."

"(정원에서) 안녕히! 여보, 기회만 있으면 반드시 소식 전하겠소."

"하지만 우리가 다시 또 만날 것 같아요?"

“그야 만날 수 있고말고. 지금 슬픔은 다음에 만나면 모조리 달콤한 얘깃거리가 될 거요.”

“아. 왜 이렇게 맘이 설렐까! 아래 계신 당신이 무덤 속 시체같이one dead in a bottom of a tomb 보여요. 제 눈이 약해서 그런지, 당신 안색이 창백해서 그런지.”

“여보, 정말, 내 눈에도 당신이 그렇게 보이는 구려. 목마른 슬픔dry sorrow이 우리들의 피를 빨아 마시는 구려. 안녕, 안녕히!

‘죽음’을 암시하는 이 대화에서 이들은 눈앞의 슬픈 현실을 한편으로는 미래의 막연한 기쁨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어찌할 수 없는 불안으로 저울질한다. 아직 펼쳐지지 않은 미래의 얼굴이 그들을 어떤 표정으로 맞이할까? 그들에게도 미래가 존재할 수 있을까?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의 길목에서 길을 잃지는 않을까? 지극한 사랑의 결말이 모든 갈등과 대립을 넘어서는 촉매가 될 그런 시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

* ‘기쁜’ 소식의 기습

방에 들어온 어머니는 울고 있는 줄리엣을 보고 “눈물로 티볼트를 무덤에서 씻어낼” 참이냐고 묻는다. 적당한 슬픔은 깊은 사랑의 표시이지만, 지나친 슬픔은 분별심이 부족한 증거일 수 있다고 달랜다. 줄리엣은 자신의 슬픔이 로미오를 향한 것이지만 어머니에게는 티볼트를 위한 눈물인 것처럼 연기한다.

“너는 티볼트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빠를 죽인 악당 놈이 살아있는 것이 분해서 우는 것이냐?”

“악당이라뇨, 어머니?”

“저 악당 로미오 말이다.”

(방백) 악당과 로미오는 하늘과 땅 차이겠지. 하느님, 그이를 용서하세요. 저도 진정으

로 용서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이처럼 내 마음을 슬프게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 배신자, 살인자가 버젓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의미를 비틀어서라도 로미오를 대화에 포함시키려 한다. 그런 ('나쁜') 로미오가 등장하는 것이 ('좋은') 로미오가 없는 것보다 나을 테니까.

"그래요, 어머니. 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요. 오빠의 죽음을 나 혼자 복수했으면 좋겠어요!"

"염려 말아라. 기어코 원수는 갚고 말테니까. 이제 그만 울어라. 추방당한 그 거지 놈이 살고 있는 만토바에 사람을 보내서 지독한 독약을 그놈에게 먹여서, 곧장 티볼트를 뒤따라 황천길로 보내버려야겠다. 그렇게 하면 넌 흡족할 것 아니냐."

"그 이를 볼 때까지는...그이가 죽는 것을 볼 때까지 저는 흡족하지 않을 거예요. 가엾게도 제 가슴은 그이 때문에 무척 괴로워요. 어머니, 누구 독약을 가져갈 사람을 구해주시면 로미오가 그걸 마시자마자 곧 잠들어버릴 독약은 제가 조제하겠어요, 아, 분해라, 그 이름을 들으면서도 가까이 갈 수 없어서. 오빠에 대한 애정을 그 살인자한테 원한으로 되갚질 못하다니!"

이렇게 능청을 떠는 줄리엣에게 어머니는 '기쁜' 소식을 전한다. 아버지가 목요일 아침에 패리스 백작과 결혼시키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아버지는 줄리엣의 슬픔이 티볼트 때문이 아니라 로미오 때문임을 모른채 결혼의 기쁨으로 그치지 않는 눈물을 씻어내고자 한다. 줄리엣의 두 번째 결혼이라니! 그것도 패리스와 해야 하다니....줄리엣은 어찌 해야 하는가? 당연히 그녀는 반발해 보지만.....

"성 베드로 교회와 성 베드로에게 걸고 단언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그분과 결혼하지 않겠어요. 왜 그렇게 서두르시나요. 남편 될 사람이 구애하기도 전에 결혼해야 하다니요. 어머니, 제발 아버님께 여쭈어주세요. 전 아직 결혼하지 않겠어요. 정 해야 한다면 패리스보다는 차라리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제가 미워하는 로미오와 결혼하겠어요. 그런 걸 기쁜

소식이라고 하시니.”

* 당신 얼굴은 내 것이라오

패리스가 사제관에 로렌스 신부를 찾아와서 결혼 얘기를 전할 때 줄리엣이 나타난다. 그는 줄리엣의 아름다운 얼굴이 슬픔 때문에 상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줄리엣이 자신과 결혼할 것이므로 “당신 얼굴도 내 것”이라고 하면서 줄리엣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 (패리스가 떠나자) 줄리엣은 결혼을 막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죽을 각오까지 한다면서 협박하듯이 도움을 청한다. (4막 1장)
이 ‘부부’는 (칼을 들고) 사랑을 위한 죽음을 불사한다고 하면서 사랑의 방해물에 굴복하지 않는다.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라도.... 이런 생사를 건 사랑의 무대에서“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는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2)

“신부님에 의해서 그이에게 바친 이 손이, 다른 짓에 보증 역할을 하거나 제 참된 사랑이 딴 맘을 먹고 한 눈을 파느니, 차라리 이 검으로 손과 마음을 모조리 잘라버리겠어요. (...) 저의 난관을 이 잔인한 검으로 가부를 결정하겠어요. (...) 신부님의 말씀도 소용없다면 차라리 자살을 하겠어요.” 줄리엣이 다급하게 경고하지 신부는 묘책을 제안한다. 그는 줄리엣에게 죽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약을 이용하자고 한다. 그 약의 힘으로 혈관 속에 “싸늘한 잠”이 퍼져서 “맥박이 멈추고, 체온과 호흡도 산사람 같지 않고. 뽀얀 입술과 볼도 시들어 허연 잿빛이 되고, 죽음이 생명의 빛을 닫아 버리듯이 두 눈의 창문도 닫히고, 손발도 생기를 잃어서 굳고, 차디찬 시체같이 될” 것이다. 가사 상태가 48시간 지속되므로, 아침에 죽은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으니 관에 담겨서 시체 아닌 시체로 집안 묘지로 갈 것이고, 그 동안에 로미오에게 알려서 둘이 안전한 곳으로 피한 뒤에..... 참으

로 위험천만한 계획이지만 다른 마땅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그런데 이런 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우연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우연의 계열 가운데 하나만 어긋나더라도 치명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말 것이다.) 3)

그런데 로미오는 신부로부터 이 계략을 듣지 못한 상태이고, 그 내용을 전하는 편지도 받지 못한다. 전염병 때문에 로미오가 추방된 곳에 가기로 한 사람이 신부의 편지를 전달하지 못한다. 신부는 다시 편지를 보내고 로미오가 올 때까지 줄리엣을 자기 암자에 안치해 두려고 한다. (5막 1장) 추방된 로미오는 베로나에서 온 하인에게서 그녀가 죽어서 집안의 묘지에 묻혔다는 비보를 접한다. 절망한 로미오는 그녀와 함께 죽기 위해서 치명적인 독약을 구해서 줄리엣이 묻힌 묘지로 달려간다.

---

2) 줄리엣의 이런 태도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일종의 암시이기도 하다. 마지막 장면에 무덤에서 깨어난 줄리엣은 사랑과 죽음의 기이한 대면을 보고 극적인 선택을 한다.

3) 죽음도 불사한다고 했지만 줄리엣은 두려움을 떨치지 못한다. (4막 3장) "안녕히! 언제나 다시 또 만날지. 싸늘한 불안이 오싹오싹 혈관 속을 돌고, 마치 생명의 열도 얼어붙는 것만 같구나. 엄마랑 다시불러서 위로나 받아 볼까, 유모...아니 유모 따위가 지금 무슨 소용 있담? 이 무서운 장면은 나 혼자해내야지. 자 약병아! 하지만 이 약이 안 들으면 어떡하나? 그때는 내일 아침 결혼을 해야 하나? 아냐, 아냐! 그건 이 단검이 막아주지. 단검아, 거기 있어라. (단검을 꺼내서 아래에 놓는다) 하지만 이게 독약이면 어떡하지? 글쎄 신부님은 날 먼저 로미오와 결혼시켰으니 이번 결혼으로 욕을 면하려고 날 죽일 셈으로 간사하게 조제한 독약이 아닐까? 걱정 되네. 그럴 리야. 오늘까지 성자로 이름난 신부이신데. 하지만 네가 무덤 속에 누워 있을 때에 로미오님이 날 구하러 오기 전에 눈을 뜨면 어떡하지? 아이 무서워! 무덤의 더러운 입구엔 맑은 공기도 안 통한다던데, 그 무덤 속에서 숨이 막히고,그이가 오기 전에 질식해 죽지나 않을까? 혹은 가령 내가 산다고 하더라도, 죽음과 밤중의 무서운 공상에 장소마저 무서운 곳이니... 아무튼 수백 년 동안 조상들의 뼈가 가득 차 있는 납골당 속이라서,게다가 피투성이일 티볼트는 갓 묻혀 수의에 감겨 썩고 있고, 또한 밤중에는 종종 귀신들이 나온다는 말도 있는데—아, 내가 눈을 너무 일찍 뜨면—저 악취나 땅에서 뽑힐 때에 그 소리만 들어도 사람이 미친다는 광인초의 비명 같은 비명 때문에—글쎄 눈을 뜨면, 온통 그런 공포 속에 쌓인 나는 결국 미쳐버리지 않을까? 그리고 미친 나머지 조상들의

뼈를 들고 놀고, 칼 맞은 티볼트의 수의를 벗기고 하다가, 결국 미친 가운데 누구 먼 조상의 뼈를 몽둥이 삼아 절망한 나머지 내 머리통을 내 손으로 쳐부수지나 않을까? 어머나, 저것 봐! 로미오 칼끝에 찔린 티볼트의 망령이 로미오를 찾고 있나 보네.아서라, 티볼트, 아서라! 로미오님, 저도 같이 갈게요! 이건 당신 축배. (줄리엣은 약을 마시고 커튼에 가려진 침대 위에 쓰러진다.

---

* 독약과 칼의 만남, 묘지에서 울리는 사랑의 노래

로미오와 줄리엣의 만남을 위한 계략은 실패하고 그들의 엇갈림은 사랑의 축제가 아니라 죽음의 연회로 바뀐다. 우연과 계략의 도움으로 포옹과 행복의 순간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을씨년스럽고 살풍경한 묘지 안에서 서로의 싸늘한 시체를 앞에 두고 '네가 죽었으니 나도 죽는', '죽음이 죽음을 부르는' 죽음의 행진이 이어진다. 그러면 이런 죽음은 무의미하거나 실패한 사랑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죽음으로 하나 된 사랑의 승리, 죽음마저 극복한 숭고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가?

사랑의 두 화신, 로미오와 줄리엣은 서로의 죽음을 대면하자 '너 없는 세계에서 살아가는 나' 대신에 '함께 죽는 우리', 죽음의 경계 너머애서 상대를 만나기 위해서 죽음의 문을 열고 달려간다.

묘지에 찾아간 패리스는 어둠 속에서 로미오와 마주치는데 둘은 얼굴도 알아보지 못한 채 서로 싸우다가 패리스가 로미오의 칼에 쓰러진다. 그는 자기를 줄리엣 무덤 곁에 눕혀 달라고 부탁한다. 로미오는 무덤의 뚜껑을 연다. (5막 3장)

" (...) 이곳엔 누운 줄리엣의 아름다움 덕분에 이 무덤이 빛이 가득한 향연장feasting presence이 되었구나. (.....) 아, 내 님, 내 아내여! 당신의 꿀맛 같은 숨결honey of thy breath을 빨아먹은 죽음의 신도 당신의 아름다움에는 아직 힘을 못 미치고 있구려. 당신은 아직도 정복당하지 않고, 두 입술과 뺨에는 아직도 아름다움 깃발이 심홍색crimson으

로 나부끼고, 파리한 죽음의 깃발death pale flag도 거기엔 못 미치고 있구려. ....아 사랑하는 줄리엣, 당신은 왜 아직도 이렇게 어여쁘오? 혹시 저 망령 같은 죽음의 귀신조차 당신에게 반해서 그 말라깽이 괴물이 당신을 이곳 암흑에 가두어 두고 정부로 삼자는 건 아닐까? 그럴지도 모르니 나는 언제까지나 당신하고 같이 있고, 이곳 컴컴한 밤의 대궐을 다시는 떠나지 않겠소. 난 당신의 시녀 구더기들과 이곳에 있을 테요. 난 이곳을 영원의 안식처everlasting rest로 삼고, 세상에 지친 이 육신에서 불운한 별들의 멍에yoke of inauspicious stars를 떨쳐 버리겠소. 눈이여, 마지막으로 보아라! 팔이여, 마지막 포옹이다! 오, 생명의 문door of breath인 입술이여, 정당한 키스로 도장을 찍어서 모든 것을 독점하는 죽음과 영구한 계약을 맺어라! 자 쓰디쓴 선도자bitter conduct, 냄새 고약한 안내자unsavoury guide, 지각없는 뱃사공아, 바다에 시달린 너의 배를 당장 암석으로 몰아가다오! 자, 내 님을 위하여! (독약을 마신다) 아, 정직한 약방 영감이구나! 약효가 빠빠르구우나아. 이이러케 키이스하하며 나난 주죽는[다].”

로미오가 죽고 나서야 신부가 무덤에 찾아온다. 패리스와 로미오가 죽어있다. 그때 줄리엣이 깨어난다.

“아, 고마우신 신부님! 그인 어디 있나요?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 잘 알고 있어요. 여기가 그곳이죠. 그이, 로미오님은 어디 계세요?”

“이봐, 사람들 소리가 들린다. 저 죽음과 질병의 부자연스러운 잠의 자리에서 나가자.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힘이 우리 계획을 방해했다. 어서 나가자. 네 남편은 네 가슴 위에 쓰러져 죽어있고, 패리스도 죽었다. (.....)”

“신부님이나 나가세요. 전 안 나가겠어요. 이게 뭔가요? 잔이 로미오님의 손에 꼭 쥐어져 있네? 독약을 먹고 불시에 죽었나 보네. 요 깍쟁이! 다 따라 마시고 뒤따라가지 못하게 단 한 방울도 남겨 놓지 않았나? 그럼 당신의 입술에 키스할래. 오, 혹시나 독약이 입술에 아직도 묻어 있다면 생명의 묘약처럼 날 천당으로 보내 주겠지. (키스한다) 입술은

따뜻하구나!"

이때 시동이 야경꾼들을 데리고 들어오는데 줄리엣은 로미오의 칼을 빼서 자기를 찌른다.

".....오, 다행스럽게도 단검이 있네. 이 것[가슴]이 네 칼집thy sheath이지! (자기 가슴을 찌른다) 거기 박혀서 날 죽여 다오."

칼과 칼집의 비유는 이들의 불가능한 결합을 대체하는 은유이다. 로미오의 일부이자 로미오를 상징하는 칼은 자신의 칼집인 줄리엣과 결합한다.

* 다시 2악장을 들으며

현악 4중주의 바이올린 파트와 첼로, 비올라 파트는 서로 애절하게 노래하며 멀어져가는 상대를 잡으려고 한다. 한쪽이 먼저 절망의 울음을 던지고 그것을 받아서 비탄의 가락으로 화음을 이룬다. 고조된 감정이 솟아오르면 심연에서 흐느낌을 참는 비통함이 서로에게 손을 내밀고 잡지 못한 서로의 손을 향해서 헤어짐을 거부하는 손짓을 그치지 않는다. 그렇게 공허한 하나가 되며 합쳐지고 나뉘면서 어딘가 보이지 않는 아스라한 곳으로 사라졌다가도 되돌아온다. 서로를 두고 떠나지만 또한 떠날 수 없는 발걸음은 아름다운 소멸과 소멸을 승화시키는 아름다움으로 나아간다. 하늘에서 추락하는 애통한 고음부와 심연에서 되울리는 저음부는 서로의 빈 곳을 채우고 그들이 지향하는 하나-둘, 둘-하나의 부재하는 일치를 지극히 아름답게 노래한다.

이들의 죽음은 음악 속에서 다른 삶을 얻는다.

이들의 죽음은 사랑을 추구하는 연인들의 마음에서 불멸의 존재로 거듭 난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또 다른 삶을 이끄는, 타고남은 재에서 부활하는 사랑을 이야기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 타고남은 재에서 거듭나고자 하는 사랑을 보았다. 로미오와 줄리엣에게 물어보자. 사랑은 무엇인가?

이들은 사랑을 삶의 여러 과정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삶을 넘어서는 어떤 것, 삶의 수많은 국면들 가운데 다른 것들과 비교할 수 있거나 다른 국면들 곁에 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국면, 지고한 그 무엇, (어떤 것의 수단이 되지 않는) 자기 목적이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사랑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가치를 다시 묻는다. 기존 사고는 '이것이 참인가, 거짓인가', '이것은 선한가, 악한가', '이것은 아름다운가, 추한가'를 질문한다. 그런데 사랑은 진리도, 선도, 아름다움도 아니고, 목적이나 수단의 틀로 설명할 수도 없다. 사랑은 다른 질문을 제시하고 새로운 척도를 요구한다. 삶과 죽음, 사회적 명성과 가치, 기쁨과 슬픔, 원한과 환의 등은 사랑 앞에서 제 모습을 드러내고 그 가치를 평가받는다. 그것들이 사랑할만한 것인지를 물음으로써 사물의 외형이나 현실적 유용성의 껍질을 벗기고, 또한 현상 배후의 본질이나 실체적 불변성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더없이 심오한' 현상들의 구체적인 관계를 드러낸다. 그것은 어떤 고정된 실체에 대한 이름도, 행위와 실천에 대한 명칭도 아니다. 그것은 존재들 간의 일정한 관계 맺기이고 존재들을 배체하고 그 상관성에 주목하는 것이다. '함께', '~없이', '곁에'/'멀리 떨어진', '사이에' 있는 것들의 밀침과 당김, 이끌거나 끌림, 선택과 배제 등을 문제 삼는다. 이런 관계에서 바깥이 안에 있기도 하고, 멀리 있지만 가깝기도 하고, 보이지 않지만 보기도 하고, 결핍이어서 충족을 요구하지만 어떤 충족에도 솟아나는 갈망이.....

To be, or not to be라는 (철학적) 질문은 삶과 죽음, 존재와 무의 대립을 삶의 지평에서 제기한다. 로미오는 질문한다. 사랑할 것인가. 사랑을 버릴 것인가? 이 질문은 삶과 죽음의 구별 너머에서 삶도 죽음도 아닌 영역에서 다른 삶, 다른 죽음, 삶과 죽음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한다. 존재와 무의 대립이 사람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안전한 질문이라

면, ‘사랑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그런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삶과 죽음이 얼굴을 마주하는 극한 상황에 대면하게 한다. 저 미지의 문턱 너머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사랑한다, 나는 존재한다/죽는다”가 사랑하는 주체들의 자기 이해라면 사랑은 존재에 대해서 질문하는 한 방식일 것이다. 그것은 어떤 존재인가? 어떤 무인가? 사랑과 죽음은 어떻게 만나는가? (나는 사랑한다는 선언은 ‘나는 존재한다’와 ‘나는 죽는다’를 모두 포함하는가?)

참고문헌

Shakespeare, W., Romeo and Juliet, Oxford Univ. Press. 2000

김 재남 옮김, 『셰익스피어 전집』, 을지서적, 1995